

【헌 법 25문】

【문 1】 조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② 이때의 법령에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포함되나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조례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④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문 2】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청구권은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과 재판에서 적용될 실체적 법률이 모두 합헌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비밀재판을 배제하고 일반국민의 감시 하에서 심리와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 ② 헌법 제27조 제4항의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의 배심원은 사실 인정과 양형 과정에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배심제와 구별되고, 배심원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배심제나 참심제와 구별된다.
- ④ 획일적인 권력재판의 허용이나,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검사가 증인으로 수감된 자를 매일 소환하는 것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 3】 대통령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②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 ③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문 4】 다음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illegible]

【문 5】 교육에 관련한 내용이다. 옳은 설명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로 제한한 서울시 조례는 학원 운영자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 다. 이른바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법령은 학부모의 자녀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영역에서는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6】 양심의 자유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 ③ 양심상의 결정은 그것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허용될 수 없다.

【문 7】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된다.
- 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 ③ 탄핵소추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서 말하는 헌법은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 ④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들의 개별적 의견이나 소수의견은 결정문에 표시할 수 없다.

【문 8】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평등 선거는 사회적 신분·재산·교양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일정 연령에 달한 모든 자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② 직접 선거는 의원의 선거가 일반유권자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유권자가 특정수의 중간선거인을 선정하고 이 중간선거인이 대표자를 선거하는 간접선거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 ③ 1인 1표제 하의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 ④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기호의 게재순위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그렇지 않은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순으로 하는 것은 소수의석 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 등을 차별하는 것이나, 헌법상의 정당제도 보호취지를 고려할 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9】 다음 중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공고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③ 헌법은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 10】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 ②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나, 여기에는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③ 죄형법정주의가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범죄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에는 적용되지만 위법성조각자유와 같이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성을 가져야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개별사건 법률뿐만 아니라 개인대상법률도 허용된다.

【문 11】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
-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 ③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④ 출생당시 부가 외국인이라든가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문 12】 다음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 포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개정되고 2007. 5. 1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 ② 형법 제304조(1953. 9. 18. 제정되고 1995. 12. 29.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방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
-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 ④ 국제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국제징수법(2002. 12. 26.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 후문

【문 13】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 ②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 대해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의를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③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 ④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체의 이익과 무관하게 무제한의 경제적 이익의 도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 14】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이른바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인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 ③ 사전허가제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 ④ 헌법재판소는 집회에서의 의사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되는 기본권의 핵심은 “집회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다.

【문 15】 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 ②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불행사한 경우 그 피해자는 자기관련성이 있다.
- ③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적격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에 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④ 장래 실시가 확실한 대학입시요강은 현재성이 인정된다.

【문16】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헌법은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까지 확장되어 있다.
- ③ 국회의 입법절차도 적법절차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 ④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受刑者)가 변호인과 주고받은 서신을 검열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문17】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형사보상제도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과는 그 근거와 요건을 달리하므로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다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재판의 경우와는 달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1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권적인 성격과 자유권적 성격 및 참정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권리이다.
- ②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는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다.
- ④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나 명예훼손과의 상충관계에 대한 미국의 판례이론은 권리포기의 이론, 공적인물의 이론, 인격영역이론 등이 있다.

【문19】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
- ③ 권한쟁의심판결정은 인용결정의 경우에 한하여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④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중구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20】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면·감형과 복권은 모두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 ② 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 ③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 어느 경우에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는 없다.
- ④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문21】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이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식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②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5조 제2항은 제6 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조항이다.
- ③ 직업공무원제도 하에 있어서는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이 그 중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대한 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입법을 형성할 책무가 있다.

【문22】 근로3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유니언숍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③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 ④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문23】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장의 사고시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②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 ③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문24】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미국 연방대법원이 누리는 권위는 Marbury v. Madison(1803) 사건 이래 쌓아올린 위헌법률심사권에 기초하는데, 이는 헌법상 사법기관·재판기관이 이원적 구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② 군사법원은 현행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특별법원으로서 이론상 예외법원이다.
- ③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특허법원은 법률로써 설치된 특수법원이다.
- ④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재판은 법원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25】 다음에 열거한 공무원 중 현행 헌법이 직접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 ① 국무위원 ② 법관 ③ 검사 ④ 감사위원

【국 어 25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 - 문2]

(가)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構成員)인 개인(個人)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作用)하는 경우(境遇)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因襲)이라는 것과의 구별(區別)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繼承)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객관화(客觀化)하고, 이를 비판(批判)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現在)의 문화 창조(文化創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의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遺物)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서양식(西洋式)으로 꾸미고 있다.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고 하던 구한말(舊韓末)의 비분 강개(悲憤慷慨)를 잊은 지 오래다. 외양(外樣)뿐 아니라, 우리가 신봉(信奉)하는 종교(宗教), 우리가 따르는 사상(思想), 우리가 즐기는 예술(藝術),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西洋的)인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學問)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祖上)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文化)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西洋)에서 받아들인 것들인 듯싶다. 이러한 현실(現實)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民族文化)의 전통(傳統)을 찾고 이를 계승(繼承)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편협(偏狹)한 배타주의(排他主義)나 국수주의(國粹主義)로 오인(誤認)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너무도 유명한 영·정조 시대(英正祖時代) 북학파(北學派)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가 지은 ‘열하일기(熱河日記)’나 ‘방정각외전(放謫閣外傳)’에 실려 있는 소설이, 몰락하는 양반 사회(兩班社會)에 대한 신랄(辛辣)한 풍자(諷刺)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장(文章)이 또한 기발(奇拔)하여, 그는 당대(當代)의 허다한 문사(文士)들 중에서도 최고봉(最高峰)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앙(推仰)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文學)은 폐관(裨官) 奇書를 따르고 고문(古文)을 본받지 않았다 하여, 하마터면 ‘열하일기’가 촛불의 재로 화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다. 말하자면, 연암은 고문파(古文派)에 대한 반항(反抗)을 통하여 그의 문학을 건설(建設)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연암에게서 찾으려고는 할지언정, 고문파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解明)의 열쇠를 제시(提示)하여 주는 것은 아닐까?

(라)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保守的)이라는 ㉠명예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問題)에 대한 올바른 해답(解答)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고정 불변(固定不變)의 신비(神秘)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存在)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 내고 창조(創造)한다고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훌륭한 문화적 전통의 소산(所産)으로 생각되던 것이, 후대(後代)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예도 허다하다. 한편, 과거에는 돌보아지지 않던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評價)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암의 문학은 바로 그러한 예인 것이다. 비단, 연암의 문학만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민족 문화의 전통과 명맥(命脈)을 이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두가 그러한 것이다. 신라(新羅)의 향가(鄉歌), 고려(高麗)의 가요(歌謠), 조선 시대(朝鮮時代)의 사설시조(辭說時調), 백자(白磁), 풍속화(風俗畵) 같은 것이 다 그러한 것이다.

【문 1】 위 글의 문맥적 흐름을 고려할 때 (가)~(라) 단락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라)-(나)-(가)-(다) ② (다)-(가)-(나)-(라)
③ (나)-(라)-(다)-(가) ④ (가)-(라)-(나)-(다)

【문 2】 위 글에서 ㉠이 지닌 의미를 가장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의미를 수용해야만 ② 비난을 받아야만
③ 현실을 부정해야만 ④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야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3 - 문4]

丙子修好條規(병자수호조규) 以來(이래) 時時種種(시시종종)의 金石盟約(금석맹약)을 食(식)하였다 하여 日本(일본)의 無信(무신)을 罪(죄)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학자)는 講壇(강단)에서, 政治家(정치가)는 實際(실제)에서, 我(아) 祖宗世業(조종세업)을 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 我(아) 文化民族(문화민족)을 土昧人遇(토매인우)하여, 한갓 征服者(정복자)의 快(쾌)를 貪(탐)할 뿐이오, 我(아)의 久遠(구원)한 社會基礎(사회기초)와 卓犖(㉠)한 民族心理(민족심리)를 無視(무시)한다 하여 日本(일본)의 少義(소의)함을 責(책)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자기)를 策勵(㉡)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他(타)의 怨尤(원우)를 暇(가)치 못하노라. 現在(현재)를 綢繆(㉢)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宿昔(㉣)의 懲辦(징변)을 暇(가)치 못하노라.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所任(소임)은 다만 自己(자기)의 建設(건설)이 有(유)할 뿐이오, 決(결)코 他(타)의 破壞(파괴)에 在(재)치 안이 하도다. 嚴肅(엄숙)한 良心(양심)의 命令(명령)으로써 自家(자가)의 新運命(신운명)을 開拓(개척)함이오, 決(결)코 舊怨(구원)과 一時的(일시적) 感情(감정)으로써 他(타)를 嫉逐排斥(질축배척)함이 안이로다.

【문 3】 이 글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면,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日本(일본)의 無信(무신) ② 征服者(정복자)의 快(쾌)
③ 吾人(오인)의 所任(소임) ④ 良心(양심)의 命令(명령)

【문 4】 ㉠ ~ ㉣에 들어갈 한자의 독음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탁월 ② ㉡ 책려 ③ ㉢ 주무 ④ ㉣ 속석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5 - 문7]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黃金)의 꽃같이 굳고 빛나는 옛 맹서(盟誓)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追憶)은 나의 운명(運命)의 지침(指針)
 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
 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
 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건잡을 수 없는 슬픔
 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
 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沈默)을 휩싸고
 듭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나)
 그림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山)에도 ㉡가마귀, 들에 가마귀
 서산(西山)에는 해 진다고
 지저귀입니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 오라고 따라 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김소월, '가는 길'

【문 5】 (가)와 (나)에 공통으로 사용된 '이별' motif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의 '이별'은 모두 강요된 것으로 시적자아를 무력하게 만든다.
- ② (가)와 (나) 모두 이별로 인한 비애와 절망을 안으로 삭이는 한의 정서가 강조되었다.
- ③ (가)의 이별은 (나)와 달리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한 방법적 계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가)의 이별은 (나)와 달리 과거의 존재, '나'와 근원적으로 합일될 수 없는 존재로 설정되었다.

【문 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행간 걸침으로 시적자아의 시간적 여유를 표현
- ② ㉡ :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객관적 상관물
- ③ ㉢ : 주체인 시적자아가 객체인 강물에게 끌려가는 시간
- ④ ㉣ : '흐릅디다'를 늘어 쓴 평안복도 방언

【문 7】 다음 중 (가)를 <보기>의 관점에 따라 감상한 것은?

<보 기>

독자가 작품을 읽는 것은 재미와 감동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체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작품의 가치는 독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얼마만큼 주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① 이 시는 내용상 기, 승, 전, 결의 구조로 되어 있어.
- ②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현실로 보아 '님'은 '조국', '민족'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 ③ 이 시는 경어체를 사용한 연가풍의 여성적 어조이기 때문에 시적자아의 소망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져.
- ④ 재회를 기약하면서 슬픔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아. 인내심 없는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8 - 문9]

(가)	
生死路隱	生死 길혼
此矣有阿米次盼伊遣	이에 이샤매 머뭇거리고,
吾隱去內如辭叱都	나는 가느다 말소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	물다 니르고 가느넛고.
於內秋察早隱風未	어느 2술 ㉠이른 브르매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이에 더애 뿌러덜 님근,
一等隱枝良出古	㉡흐든 가지라 나고
去奴隱處毛冬乎丁	가는 곧 모드론더.
阿也彌陀利良逢乎吾	아야 彌陀利아 맛보올 나
道修良待是古如	道 닷가 기드리고다. <제매매가>

(나)
 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숯호요이다
 아니시며 거즈르신 들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녀시라도 님은 혼디 녀저라 아으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없소이다
 돌히마리신더
 슬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호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정과정>
 * 돌히마리신더 : 못사람의 험뜯는 말이로다
 * 슬웃븐더 : 슬프구나

【문 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향가의 정제된 형태인 10구체의 형식으로 된 노래다.
- ② 시적자아는 시적 대상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 ③ 시적자아는 시적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처지를 자연물에 견주어 표현하고 있다.

【문 9】 (가)와 (나)의 ㉠ ~ ㉣에 대한 풀이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 누이의 요절(夭折)
- ② ㉡ : 동기지간(同氣之間)
- ③ ㉢ : 시적자아의 객관적 상관물
- ④ ㉣ : 임금을 상징하는 초월적 존재

(가)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응혜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 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정약용, '보리타작'

(나)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후렴)
이봐라 농부야 내 말 듣소 이봐라 일꾼들 내 말 듣소.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하늘님이 주신 보배 편편옥토(片片沃土)가 이 아닌가.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물꼬 찰랑 돌아 놓고 권네 영감 어디 갔나.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한다 소리를 펴 잘하면 질 가던 행인이 질 못 간다.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우리야 일꾼들 자로 한다.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저 논배미로 건너가세.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담송담송 댕 마지기 반달만치만 남았구나.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일락서산(日落西山)에 해는 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에 달 돋는다.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못하는 건 우리야 일꾼들 솜씨로다.

-‘논매기 노래’

(다)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호고.
넋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들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
리(夕陽裏)에 뛰여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돌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게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익 다룰소나.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하네,

(㉠)을/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정극인, '상춘곡'

【문10】 (가)~(다)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와 달리 (나)의 계절적 배경은 알 수 없다.
- ② (나)와 달리 (가)와 (다)에는 자기 반성적인 태도가 담겨 있다.
- ③ (다)와 달리 (가)와 (나)는 평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생각을 표현하였다.
- ④ (다)와 달리 (가)와 (나)에는 노동하는 평민들의 낙천적이고 굳센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문1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4음보를 기본으로 3·4조 또는 4·4조의 음수율이 구사되었다.
- ② 눈에 모를 내면서 노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부른 민요이다.
- ③ ㉠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부분으로 흥을 돋우어 피로를 잊게 한다.
- ④ ㉡은 농부들의 자부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으로 낙천성을 잘 드러낸다.

【문12】 (다)글의 ㉠에 들어갈 말로, 주제를 함축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표누항(簞瓢陋巷) ② 한중진미(閑中眞味)
- ③ 청풍명월(淸風明月) ④ 주객일체(主客一體)

【문13】 다음 ㉠~㉣ 중 한자의 표기가 틀린 것은?

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나라마다 안으로는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으로 불평등, 불합리가 있고, 밖으로 국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시기, ㉡알력, ㉢침략,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한 보복(報復)으로 작고 큰 전쟁이 끊일 사이가 없어서 많은 생명과 재물을 희생하고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심(人心)의 불안(不安)과 도덕(道德)의 ㉣타락은 갈수록 더하니, 이래 가지고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 인류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 ① ㉠시기 : 猜忌 ② ㉡알력 : 軋轢
- ③ ㉢침략 : 侵略 ④ ㉣타락 : 墜落

【문14】 다음에 제시된 외래어 중 표기법에 맞는 어휘의 수는?

기부스, 슈퍼마켓, 코메디, 뷔페, 초콜렛, 악세사리, 리더십, 로봇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15】 다음 문장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 ① 날씨가 흐리고 한두 차례 비가 올 전망이다.
- ② 어리다고 알아보다가는 큰 코 다친다.
- ③ 영수는 나이는 어릴 망정 철은 다 들었다.
- ④ 그녀가 죽은지 3년이나 되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6 - 문18]

- (가)
 덩아 돌하 當今(당금)에 계상이다. / 덩아 돌하 當今(당금)에 계상이다.
 先王聖代(선왕성대)에 노니와와지이다.
- (나)
 삭삭기 세몰에 별해 나눈 / 삭삭기 세몰에 별해 나눈 / 구은 밤 닛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有德(유덕)헌신 님를 여히와와지이다.
- (다)
 玉(옥)으로 蓮(련)스고줄 사교이다.
 玉(옥)으로 蓮(련)스고줄 사교이다.
 바회 우회 接柱(접주)호요이다.
 그 고지 三同(삼동)이 꺾거시아
 그 고지 三同(삼동)이 꺾거시아
 有德(유덕)헌신 님 여히와와지이다.
- (라)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히든 그즈리잇가.
 즘은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즘은 히를 외오곰 녀신들
 信(신)잇든 그즈리잇가.

【문16】 이 노래는 민요로 불리다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된 노래로 추정되
 기도 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연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문17】 이 노래와 관련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문학의 형식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② 역설적 상황의 제시를 통하여 시적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③ 화자의 내면 심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④ 조선시대 선비들의 유교적 지조를 반영하고 있는 노래로 볼 수 있다.

【문18】 위 글에서 시적 화자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어
 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몰에 ② 구은 밤 ③ 바회 ④ 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9 - 문20]

흰 구름 브흰 煙霞(연하) 프로니는 山嵐(산람)이라. 千巖(천암) 萬壑(만
 학)을 제 집으로 사마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장공)의 쉼나거니 広野(광야)로 거너거니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지트락 斜陽(사양)과 섯거더 細雨(세우)조조 쐤리는다. 藍輿
 (남여)를 비야 두고 술 아리 구븐 길로 오며 가며 紅는 적의 綠楊(녹
 양)의 우는 黃鶯(황앵) 嬌態(교태) 겨워 紅노파야. 나모 새 즈즈지여
 樹陰(수음)이 얼린 적의 百尺(백 척) 欄干(난간)의 긴 조오름 내어 퍼
 니 水面(수면) 涼風(양풍)이야 굿칠 줄 모르는가. 즈 서리 싸진 후의
 산빛치 錦繡(금수)로다. 黃雲(황운)은 또 잊지 萬頃(만경)에 편거기요
 漁笛(어적)도 흥을 게워 들을 썩라 브닌다. 草木(초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티물켜늘, 造物(조물)이 흰스호야 氷雪(빙설)로 쑤며 내니
 瓊宮瑤臺(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眼底(안저)의 버러세라. 乾
 坤(건곤)도 가움열사 간 대마다 경이로다. / 人間(인간)을 쉼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브툼도 혀려 호고
 들도 마즈려코 봄오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나고 柴扉(시비)란 뉘
 다드며 딴 곳즈란 뉘 쉼려노. 아춤이 낮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오
 놀리 不足(부족)커니 來日(내일)리라 有餘(유여)하랴.

이 뵈히 안즈 보고 저 뵈히 거러 보니 煩勞(번로)호 므음의 브릴 일
 이 아조 업다. 설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하랴. ㉠다만 紅 青藜杖
 (청려장)이 다 므디어 가노미라. 술이 낙엇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불늑며 트이며 혀이며 이이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취흥)을 비야거
 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
 츠락 올프락 폰람하락 노혜로 놀거니 天地(천지)도 넓고넓고 日月
 (일월)도 흥가하랴. 羲皇(희황)을 모를러니 이적이야 기로고야. 神仙
 (신선)이 엇더던지 이 몸이야 기로고야. 江山風月(강산 풍월) 거늘
 리고 내 百年(백 년)을 다 누리면 岳陽樓上(악양루상)의 李太白(이
 태백)이 사라오다. 浩蕩情懷(호탕정회)야 이에서 더흘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亦君恩(역군은)이샷다.

【문19】 이 작품에서 서술되고 있는 내용 중 작가의 신분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斜陽(사양) ② 藍輿(남여) ③ 黃雲(황운) ④ 醉興(취흥)

【문20】 위 글의 ㉠다만 紅 青藜杖(청려장)이 다 므디어 가노미라.에서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가는 자연경치를 완상하기 위해 많이 돌아 다녔다.
 ② 작가는 세속적 욕망과 탈속적 초월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③ 작가는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④ 작가는 자기의 의지로 세속적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

【문21】 <보기>는 서론의 일부이다.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탁월함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물
 음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의 탁월함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가르칠
 수 없고,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
 유한다. 그에 따르면, 리라(lyra)를 꺾으로써 리라를 켜는
 법을 배우며 말을 탐으로써 말을 타는 법을 배운다. 어떤
 기술을 얻고자 할 때 처음에는 교사의 지시대로 행동한
 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하여 그 행동이 점점 더 하기
 쉽게 되고 마침내 제2의 ㉡습관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로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진실되
 고 관대하며 예의를 차리게 되는지 일일이 배워야 한다.
 ㉣예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
 이다. 그래서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그런 행위들을 연마
 하다 보면 그것들을 점점 더 쉽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 ① ㉠은 문장성분 간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은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천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 ㉢은 문장 내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그러므로’로 고
 쳐야 한다.
 ④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22 - 문23]

옛그제 저멋더니 허마 어이 다 늘거니.
 少年行樂(소년 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업다.
 늘거야 서른 말슴 하자니 목이 맨다.
 父生母育(부생 모육) 辛苦(신고)하야 아내 몸 길러 낼 제
 公侯配匹(공후 배필)은 못 바라도 ㉠君子好逑(군자 호구) 願(원)하더니,
 三生(삼생)의 怨業(원업)이오 月下(월하)의 緣分(연분)으로,
 長安遊俠(장안 유헌) 輕薄子(경박자)를 곱근치 만나 잇서,
 當時(당시)의 用心(용심)하기 살어름 디디는 듯,
 三五二八(삼오 이팔) 겨오 지나 天然麗質(천연 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態度(태도)로 百年期約(백년 기약) 하얏더니,
 年光(연광) 훌훌하고 造物(조물)이 多猜(다시)하야,
 ㉡봄바람 가을 물이 비오리 북 지나듯
 雪鬢花顏(설빈 화안) 어딴 두고 面目可憎(면목 가증)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필소나.
 스스로 慚愧(참괴)하니 누구를 怨望(원망)하리.
 三三五五(삼삼 오오) 冶遊園(야유원)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 업시 나가 잇어.
 ㉢白馬金鞭(백마 금편)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랴.
 因緣(인연)을 국쳐신들 싱각이야 업슬소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문,
 열두 썩 김도 길사 설흔 날 支離(지리)하다.
 玉窓(옥창)에 심근 梅花(매화) 몇 번이나 띄여 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취는 것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즌 비는 므스 일고.
 ㉣三春花柳(삼춘 화류) 好時節(호시절)의 景物(경물)이 시름업다.
 가을 들 방에 들고 蟋蟀(실술)이 床(상)에 올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규원가>

【문22】 이 글의 화자(話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여인의 외로움과 한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과 현재의 추한 모습을 대비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 ③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에 대한 심한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원망스런 남편을 잊고 체념하면서 덧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문23】 다음 ㉠ ~ ㉣에 대한 풀이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 군자들이 바라는 아름다운 미녀를 의미한다.
- ② ㉡ : 비유적 표현으로 세월이 빨리 흘러감을 의미한다.
- ③ ㉢ : 호사스러운 행장을 의미한다.
- ④ ㉣ :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24 - 문25]

명서 처 음, 그 애에게서 물건이 온 게로구먼.
 명서 뭘까?
 명서 처 세상에 귀신은 못 속이는 게지! 오늘 아침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더니, 이것이 올려구 그랬던가 봐. 당신은 우환이니 뭐니 해도…….
 명서 (소포의 발송인의 이름을 보고) 하야 하! 이건 네 오래비가 아니라 삼조(三祧)가…….
 명서 처 아니, 삼조가 뭇을 보냈을까? 입때 한 마디 소식두 없던 애가……. (소포를 끌러서 껍작을 떼어 보고)
 금녀 (깜짝 놀라) 어마나!
 명서 처 (자기의 눈을 의심하듯이) 대체 이게……. 이게? 예그머니, 맏소사! 이게 웬 일이나?
 명서 (되려 멍청해지며, 껍작에 쓰인 글자를 읽으며) 최명수의 백골.
 금녀 오빠의?
 명서 처 그럼, 신문에 난 게 역시! 아야, 이 일이 웬 일이나? 명수야! 네가 왜 이 모양으로 돌아왔느냐? (백골 상자를 짝 안는다.)
 금녀 오빠!
 명서 나는 여태 개 돼지같이 살아 오문서, 한 마디 불평두 입밖에 내지 않구 꾸벅꾸벅 일만 해 준 사람이여.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자식을 이 지경을 맨들어 보내느냐? 응, 이 육실혈 늑들! (일어서려고 애쓴다.)
 금녀 (눈물을 씻으며) 아버지! (하고 붙든다.)
 명서 놓아라, 명수는 어디루 갔니? 다 기울어진 이 집을 뉘게 남겨 두구 이눔은 어딜?
 금녀 아버지! 아버지!
 명서 (껍작을 들고 비틀거리며) 이눔들아, 왜 백다구만 내게 갖다 땀기느냐? 내 자식을 죽인 놈이 이걸 마저 처치해라! (세진하여 쓰러진다. 껍작에서 백골이 쏟아진다. 맑은 기침, 한동안)
 명서 처 (흔어진 백골을 주우며) 명수야, 내 자식아! 이 토막에서 자란 너는 백골이나마 우리를 찾아 왔다. ㉠인제는 나는 너를 기다려서 애태울 것두 없구, 동지 선달 기나긴 밤을 울어 새우지 않아두 좋다! 명수야, 이제 너는 내 품 안에 돌아왔다.
 명서 …아야, 보기 싫다! 도루 가져가래라!
 금녀 아버지, 서러 마세유. 서러워 마시구 이대루 꼭 참구 살아 가세유. 네, 아버지! 결코 오빠는 우릴 저바리진 앓을 거예요. 죽은 혼이라도 살아 있어, 우릴 꼭 돌봐 줄 거예요. 그 때까지 우린 꼭 참구 살아 가세요. 예, 아버지!
 명서 …아야, 보기 싫다! 도루 가지구 가래라!
 (금녀의 어머니는 백골을 안치하여 놓고, 열심히 무어라고 중얼거리며 합장한다. 바람소리 적막을 찢는다.)
 —막(幕)—
 <토막>

【문24】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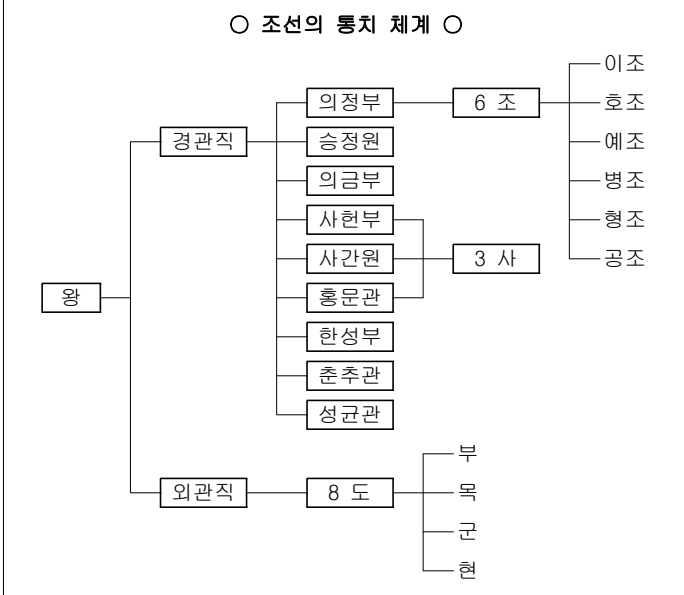
- ① 이 글은 대사와 행동이 중심이 되는 희곡에 해당한다.
- ② 실제로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부재적(不在的) 주인공(명수)의 백골을 통해 주제를 상징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 중 금녀는 미래지향적이고 의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 ④ 결말부에 제시된 바람소리는 갈등의 해소를 암시하는 효과음이다.

【문25】 명서 처의 대사 ㉠과 표현이나 발상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②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 화사한 그의 꽃 / 산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 ③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 도룬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 ④ 아야,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한국사 25문】

【문 1】 다음 조선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6조는 각 조마다 속사, 속아문을 두어 직능별로 행정을 분담했다.
- ② 의금부는 고려 말의 순군부를 개편한 왕 직속의 상설 사법기관이었다.
- ③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고, 도승지 이하 6승지가 6조를 분담했다.
- ④ 왕은 5품 이하 당하관을 임명할 때 의정부의 재상과 이조 판서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문 2】 다음 백제의 정치 발전 과정 중 (가)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마한정복 → 웅진(공주)천도 → (가) → 남부여로 국호개칭

- ①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제를 도입하였다.
- ② 중국 요서, 일본 규슈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 ③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통제를 강화하였다.
- ④ 불교를 공인하여 사상적으로 중앙집권체제를 뒷받침하였다.

【문 3】 사료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 5년 봄에 다시 완산주를 설치하고 용원으로 총관을 삼았다. 거열주를 승격하여 청주를 설치하니 비로소 9주가 갖추어져서 대야찬 복제로 총관을 삼았다. 3월 남원 소경을 설치하고 여러 주와 군의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 9년 봄 정월에 내외관의 녹읍을 폐지하고 해마다 차등을 두어 조(租)를 주도록 하교하고, 이를 고정된 법식으로 삼았다. 왕이 달구벌로 서울을 옮기려다 실현하지 못하였다.
- < 삼국사기 >

—<보 기>—

- ㄱ. 당을 축출하고 통일왕국을 형성하였다.
- ㄴ. 김흠돌 모역사건을 계기로 귀족세력을 숙청했다.
- ㄷ. 유학사상을 강조하고, 국학을 설립했다.
- ㄹ.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정벌케 하였다.
- ㅁ.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세력으로 6두품이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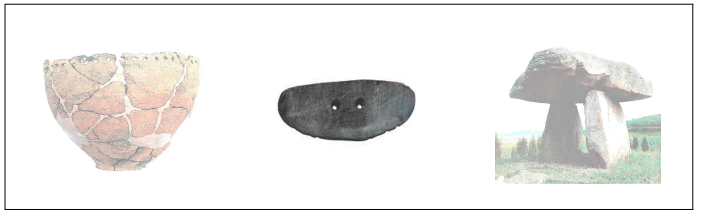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문 4】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에 일어난 의병항쟁으로 옳은 것은?

아!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경쟁에서 잔멸하리라.
다만 영환은 한번 죽음으로써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이천만 동포형제에게 사죄하노라.
영환은 죽어도 죽지 않고 구천 아래에서 여러분을 돕고자 하나... 일심협력하여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면 죽은 몸도 저승에서 기뻐 웃으리라.
아! 실망하지 말라. 우리 대한제국 이천만 동포형제들에게 이별을 고하노라.

- ① 고종의 해산권고조칙에 따라 해산되었다.
- ② 해산된 군인이 주도한 의병항쟁이었다.
- ③ 남한대토벌작전 이후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했다.
- ④ 평민의회장 신돌석이 올진, 평해 지역에서 활동했다.

【문 5】 다음은 과거 어느 시기 우리나라의 유물이다. 이 유물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 ① 무리를 이루어 큰 사냥감을 찾아다녔고 평등한 공동체적 생활을 하였다.
- ②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 ③ 이들의 집은 대개 움집이었는데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중앙에 위치하였다.
- ④ 이 시기 한반도 북부지역 사람들은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를 사용했다.

【문 6】 다음 노래가 불러질 시기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 뜯고요
어랑어랑 어허야
양곡배급 적어서 콩깍묵만 먹고 사누나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없어 울고요
어랑어랑 어허야
풀만 씹는 어미소 배가 고파서 우누나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에
금불이 쇠불이 밥그릇마저 모조리 굶어 갓고요
어랑어랑 어허야
이름 석 자 잃고서 족보만 들고 우누나

<신고산 타령>

- ① 한국광복군이 충청에서 창설되었다.
- ②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이 이루어졌다.
- ③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가 성립되었다.
- ④ 북로군정서군 중심으로 청산리대첩이 일어났다.

【문 7】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왕의 업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조전랑 통청권의 폐지와 한천법의 개혁은 결과적으로 선조대 이래 지속되어온 과당정치의 사실상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1742년 “周而弗比 乃君子之公心 比而弗周 寔小人之私意 (원만해 편벽되지 않음은 곧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벽해 원만하지 않음은 바로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라는 문구를 친히 지어 비(碑)에 새겨 성균관 반수교(泮水橋) 위에 세워 ‘탕평비(蕩平碑)’라 하였다. 한편으로는 성균관 유생들에게 당론을 금하도록 계책하여 자신의 탕평정책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었다.

- ① 사형수에 대한 엄격한 삼심제를 시행했다.
- ② ‘초계문신제’에 따라 하급관리를 재교육 했다.
- ③ 민의 상달을 위한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켰다.
- ④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문 8】 조선후기 수취제도인 (가)~(다)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 (가) 1년에 2필의 군포를 납부하던 농민 장정들에게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게 하였다.
- (나) 농민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였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면적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 (다) 농토의 비옥도와 그 해의 풍흉에 따라서 전세를 납부하던 연분 9등급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인조 때 전세를 토지 1결 단위로 고정시켰다.

- ① (가)에 의해 양반과 농민의 군역 부담이 균등해지게 되었다.
- ② (가)의 실시로 인한 재정 부족분은 결작(토지 1결당 4두)을 통해 채웠다.
- ③ (나)는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광해군 때 처음 시행하였다.
- ④ (다)는 영정법으로 토지 1결당 미곡 2두로 전세율을 인하였다.

【문 9】 다음의 (가),(나)에 기원을 두는 조선의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말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한 후, 사대부층은 점차 고려 왕조의 테두리 안에서의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려는 온건파와, 왕조 자체를 바꾸려는 혁명파로 갈렸다. (가)정도전 등의 혁명파 사대부는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권문세족과 (나)정몽주를 비롯한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새 왕조를 개창하였다.

- ① (가)는 성리학 이외의 사상, 학문을 배격하였다.
- ② (나)는 자주적 사관을 갖고 단군을 중시하였다.
- ③ (나)는 도덕과 의리를 숭상하는 왕도정치를 추구했다.
- ④ (가)와 (나)의 대립으로 봉당정치가 전개되었다.

【문10】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포한 집권층의 개혁방향을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 외척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7.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의 관할에 속한다.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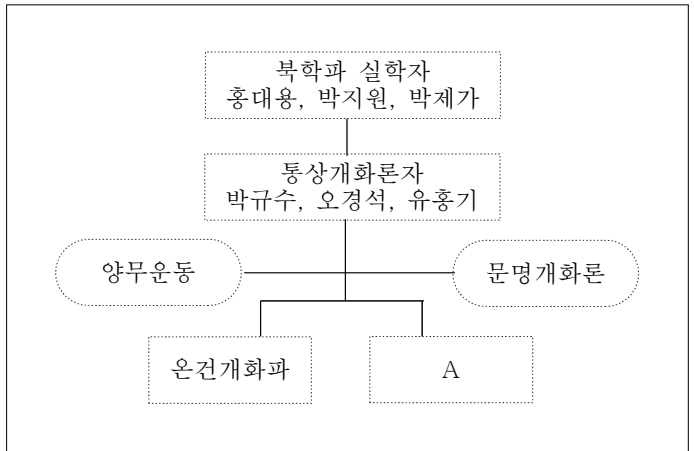
- ① 전통적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농민층의 개혁 요구의 일부도 반영한다.
- ② 경복궁을 중건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한다.
- ③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자주 국권, 자유 민권사상을 고취시킨다.
- ④ 국권회복과 공화 정치 체제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문11】 다음 고려 시대의 전시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경종 원년(976) 11월에 비로소 직관(현직 관리), 산관(퇴직 관리)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 18품으로 나눈다. 1품은 전(田)과 시(柴)가 각각 110결, 18품은 전 33결·시 25결이다.
- (나) 목종 원년(998) 12월에 문무 관리와 군인, 한인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 100결·시 70결, 제17과는 전 23결, 제18과는 전 20결로 한다.
- (다) 문종 30년(1076)에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 100결·시 50결, 제17과는 전 20결, 제18과는 전 17결로 한다.

- ① (가) 시기에는 관품과 인품이 병용된 다원적 기준이 적용되었다.
- ② (나) 시기에는 같은 양의 전지, 시지를 직·산관 및 무관들에게 지급되었다.
- ③ (다) 시기에는 현직관리에 한해 토지를 지급했고, 별사과, 무산과 전지도 지급되었다.
- ④ 관등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이다.

【문12】 A에 해당하는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김홍집, 어윤중 등이 그 구성원이다.
- ② 친청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했다.
- ③ 반외세 반침략운동을 주도하였다.
- ④ 입헌군주제에 기반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문13】 다음 자료를 읽고 당시에 있었던 일을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계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9만 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半徑)밖에 되지 않는데도 몇천만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하물며 천체들이 서로 의존하고 상호 작용하면서 이루고 있는 우주 공간의 세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다. ……칠정(七政)이 수레바퀴처럼 자전함과 동시에, 멧돌을 돌리는 나귀처럼 둘러싸고 있다. 지구에서 가까이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해와 달이라 하고, 지구에서 멀어 작게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오성(五星)이라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동일하다. <담헌집>

- ① 중국의 역법인 수시력이 비로소 도입되었다.
- ② 중국 중심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 ③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서율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역법서가 나왔다.
- ④ 천문과 역법을 맡은 관청으로 사천대가 설치되었다.

【문14】 다음은 우리 나라 역사 서술 경향이다. 시대 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실증적이며 비판적 역사 서술로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벗어날 것을 주장한 학자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나)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명분을 밝히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서를 편찬하였는데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한 삼국사기가 있다.
 (라)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승휴의 제왕운기 등이 있다.

- ① (가)-(나)-(다)-(라) ② (나)-(다)-(라)-(가)
 ③ (다)-(라)-(나)-(가) ④ (나)-(가)-(라)-(다)

【문15】 다음은 조선 후기 어느 실학자의 토지 개혁론이다. 이 실학자와 관련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만 매매를 허용하자

- ①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나라를 좀먹는 폐단으로 노비 제도, 과거 제도, 양반 문벌 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③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④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제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문16】 다음 자료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오호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천만의 귀에 항상 애국이란 글자가 울리게 할까. 가로되 오직 역사로써 할지니라. 오호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천만의 눈에 항상 나라라는 한 글자가 배회하게 할까. 가로되 오직 역사로써 할지니라. -신채호-

〈보 기〉

- ㄱ. 이병도, 손진태에 의해 ‘진단학회’가 창립되었다.
 ㄴ. <월남망국사>와 같은 외국의 망국사를 번역하였다.
 ㄷ.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를 편찬하였다.
 ㄹ. <울지문덕전>과 같은 영웅들의 전기가 저술되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1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종이 인조의 적장자라면 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아들을 위해 3년복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한 등급 내려 중자복인 1년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

- ① 위 논쟁의 결과 3년복이 채택되어 남인이 권력에서 물러났다.
 ②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한 기해예송과 관련된 내용이다.
 ③ 왕권과 신권의 차별성보다 보편성을 중시한 봉당의 주장이다.
 ④ 서인 계열의 주장으로 숙종 때 경신환국 이후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하였다.

【문18】 다음은 조선후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은진 강경장에서 상평통보를 가지고 거래하는 보부상
 (나) 청 상인에게 비단, 약재를 사는 의주의 상인
 (다) 황해도 수안에 금광을 찾아 몰려든 광꾼
 (라) 철점(대장간)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민간 수공업자

- ① (가) : 15세기 말부터 나타나는 장시는 지방민의 교역장소로 보통 5일마다 열렸는데, 18세기 중엽에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② (나) : 국제 무역에서 사적 무역인 후시가 허용되면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상인은 의주의 만상과 동래의 내상이었다.
 ③ (다) :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물주가 상인에게 자본을 조달받고 채굴업자,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④ (라) : 민간 수공업자는 대체로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독자적 생산과 이를 직접 판매하는 수공업자들이 나타났다.

【문19】 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당시 사회 모습을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을에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 처와 자식에게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여도 나라 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만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고을의 수령이 보낸 물건은 극히 정묘하고, 또 어느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넉넉하다고 말한다. 이름 있는 관리들이 말하는 것이 이러하다면,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다.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하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려 마지않았다.

〈목민심서〉

- ①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기구로 자리 잡았고, 유력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② 향촌에서는 수령의 역할이 배제되고 지방 사족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농민을 수탈했다.
 ③ 정감록같은 비기와 무격신앙이나 미륵신앙이 유행하였다.
 ④ 벽서나 캐서 등의 형태로 나타나던 농민 항거는 점차 농민 봉기로 변화되어 갔다.

【문20】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설치하였다.
 ○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 ① 최고 학부 구실을 하였고 입학자격은 생원,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②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교육 기관으로 교육받는 자의 연령은 대개 8, 9세부터 15, 16세 정도에 이르렀다.
 ③ 봄·가을로 향음주례를 지냈으며 국자학, 태학, 사문학 같은 유학부가 있었다.
 ④ 중등 교육 기관으로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문21】 (가)의 영토를 수복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현공부법이 실시되었다.
- ②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하였다.
- ③ 윤관의 별무반이 창설되었다.
- ④ 다루가치가 파견되어 내정간섭을 했다.

【문22】 다음은 신라시대 두 승려가 주장한 사상이다. 승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법성은 원용하여 두 모습이 없으니 모든 불법은 부동하여 본래 고요하다. …하나 안에 일체이며, 모두 안에 하나이다. 하나가 곧 일체이며 모두가 곧 하나이다. 하나의 작은 먼지 안에 모든 방향을 포함하고 일세의 먼지 안에 역시 이와 같다.

(나) …열면 헬 수 없고 가없는 뜻이 대종(大宗)이 되고, 합하면 이문(二門) 일심(一心)의 법이 그 요차가 되어 있다. 그 이문 속에 만 가지 뜻이 다 포용되어 조금도 혼란됨이 없으며 가없는 뜻이 일심과 하나가 되어 혼용된다.

- ① (가) :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해 화엄사상을 정립하였다.
- ② (가) : 영주에 있는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했다.
- ③ (나) :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사상을 이끌었다.
- ④ (나) : ‘십문화쟁론’에서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켰다.

【문23】 연표에서 (가)시기에 들어갈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910	1919	1937	1945
	(가)		
국권피탈	파리강화회의	중일전쟁	8·15광복

<보 기>

- ㄱ.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민족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 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 ㄷ.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개편되면서 더욱 활발한 한글 보급 활동이 전개되었다.
- ㄹ. 일제가 조선의 식민지적 토지소유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대규모의 국토조사사업이 실행되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문24】 고조선 역사 전개의 올바른 순서를 고르면?

<보 기>

- ㄱ. 중국 한(漢)에 맞서 대항하다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 ㄴ. 요서 지방을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 ㄷ. 위만이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었다.
- ㄹ. 고조선의 8조법이 60여조로 증가하고 풍속도 각박해졌다.

- ① ㄱ-ㄴ-ㄷ-ㄹ ② ㄴ-ㄱ-ㄷ-ㄹ
- ③ ㄴ-ㄷ-ㄱ-ㄹ ④ ㄷ-ㄴ-ㄹ-ㄱ

【문25】 다음 중 조선 전기의 수취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된 것은?

- ① 조세는 쌀, 콩으로 냈는데 평안도, 황해도 등은 바닷길로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해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 ② 세종 때에는 조세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에 따라 전분 6등법, 풍흉의 정도에 따라 연분 9등법을 실시하였다.
- ③ 군역에 있어서 양반, 서리, 향리들도 정군과 보인에 교대로 복무하였다.
- ④ 요역은 토지 1결을 기준으로 정남의 수를 고려하여 뽑고 성, 왕릉, 저수지 등의 공사에 동원하였다.

【영 어 25문】

【문 1】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Scientists working in Central America have discovered ruins of one of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palaces built by the ancient Mayan people at Cancun, Guatemala. It was built about 1,300 years ago. Jungle plants have covered the ruins for hundreds of years, and the area looks like a huge hill covered by jungle. The palace has 170 rooms built around 11 open areas. The discovery of the ruins will certainly increase historians'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life of the Mayan people, who were at the height of power in Central America and Mexico more than one thousand years ago. Writings on the newly found palace walls say it was built by King Tah ak Chaan, who ruled Cancun for about fifty years beginning in the year 740 A.D.

- ① One of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palaces was built about 1,300 years ago.
- ② The area looks like a huge hill covered by jungle.
- ③ The palace was built by a Mayan king in the 7th century.
- ④ The Mayan people was at the height of power in Central America and Mexico.

【문 2】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은?

The ①35-year-old federal law regulating tap water is so out of date ②which the water Americans drink can pose what scientists say are serious health risks — and still be legal. Only 91 contaminants are regulated by the Safe Drinking Water Act, yet more than 60,000 chemicals ③are used within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stimates. Government and independent scientists have scrutinized thousands of ④those chemicals in recent decades, and identified hundreds associated with a risk of cancer and other diseases at small concentrations in drinking water, according to an analysis of government records by The NewYork Times.

- ① 35-year-old ② which ③ are used ④ those

【문 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If solar energy can be produced cheaply, it will benefit both the environment and the world's economies. At this time a major economic obstacle for poorer nations is the cost of electricity. It is impossible to run factories and communications systems without electric power. So when poor nations try to build up their economies, they are forced to use the cheapest fossil fuels available, and this can cause environmental and health problems. The prospect of cheap and clean solar electricity means that economic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will not _____. Some people think large-scale use of solar energy is a kind of fantasy, but many great inventions in history, including the airplane, seemed impossible initially.

- ① continue without any barrier
- ② guarantee eco-friendly policy
- ③ create environmental disasters
- ④ affect heating and cooling system

【문 4】 새로운 오토바이의 특성 중의 하나가 아닌 것은?

Jetway's New Bike Hits the Mark!

Jetway's new 2010 Jetway MX200 is the fastest motorbike available and can be ridden by the widest range of riders, including those with a little experience. The new 2010 Jetway MX200 is available in four different color schemes. It also looks better than previous motorcycles from this company and appears to have a sleeker and more curvaceous look. Thanks to new fully adjustable suspension technology, the handling of each motorcycle can be individually adjusted to a rider's weight or the street environment. This can greatly improve a rider's ability to drive it. The onboard computer fan also automatically adjust speed, acceleration and braking forces in order to keep the bike's handling optimal. The tires designed for this bike are capable of performing well in all types of road conditions and prevent slipping better than any other bike available on the market.

- ① It is more fuel-efficient than other models.
- ② It handles very well on the road in all conditions.
- ③ It is more attractive to riders than other models.
- ④ It can be customized to each rider's preferences.

【문 5】 다음 밑줄 친 것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When I was a boy, my father decided to build a basketball court for my brother and me. He made a cement driveway, put a backboard on the garage and was just getting ready to put up ①the basket when he was called away on an emergency. He promised to put up the hoop as soon as he returned. "No problem," I thought. "I have a brand-new basketball and ②a new cement driveway on which to dribble it." For a few minutes I bounced the ball on the cement. Soon that became boring, so I threw the ball up against the back board — once. I let the ball run off the court and didn't pick it up again until Dad returned to put up the rim. Why? It's no fun playing basketball without ③a goal. How true that is to life! The joy is in having ④something to aim for and strive for.

【문 6】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If an expectant mother knew that dangerous creatures lurked around her, and knew also that she wouldn't be around to take care of her young, she might be _____. And if she had a way to warn her young before they were born, surely she would. Human mothers cannot do this,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But pregnant crickets, it appears, do have the ability to _____. This is especially useful since crickets abandon their young after birth.

- ① stressed — forewarn ② delighted — forewarn
- ③ stressed — bear ④ delighted — bear

【문 7】 When will the court order be removed?

CLOSED BY COURT ORDER

This building has been closed and sealed by the Sheriff pursuant to an Order issued by Judge B. R. O'Reilly, 3rd District Magistrate's Court, and many not be entered into, demolished or materially altered in any manner. Violation may result in severe criminal penalties including fine and imprisonment.

This order shall stand and be effective until removed by Order of the same Court. Such a removal Order will be issued only upon presentation to the Court of Proof of Payment of the amount of Seven Thousand Three Hundred and Twenty Four Dollars (\$7,324) in property tax arrears by the deeded owner of the property, Peter Paltram Holdings Inc., or its representative.

In the event that such payment is not made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posting of this Order, the property may be seized by the City of Hamston and sold at auction with any proceeds in excess of the stated tax arrears (plus any costs of sale) being remitted to the deeded owner.

- ① In ninety days
- ② When the taxes have been paid
- ③ After sale costs have been paid
- ④ After the building owner is fined

【문 8】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Everyday life in the British colonies of North America may now seem to have been glamorous, especially as reflected in antique shops. But judged by modern standards, it was quite a(n) _____. For most people, the labor was heavy and constant from daybreak to nightfall. Basic comforts now taken for granted were lacking. Public buildings were often not heated at all. Drafty homes were heated only by inefficient fireplaces. There was no running water or indoor plumbing. The flickering light of candles and whale oil lamps provided inadequate illumination. There was no sanitation service to dispose of garbage; instead, long-snouted hogs were allowed to roam the streets, consuming refuse.

* long-snouted 긴 주둥이가 달린

- ① outdated style ② ingenious living
- ③ perfect way of life ④ miserable existence

【문 9】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은?

Mount Everest are legendary. Massive snow and ice avalanches are a constant threat to all expeditions, sometimes burying valleys, glaciers, and climbing routes. Hurricane-force winds are a well-known hazard on Everest, and many people have been killed when their tents were ripped to shreds by the gales. _____, the dramatic loss of body heat, is also a major and debilitating problem in this region of high winds and low temperatures.

- ① Hypothermia ② Hyperthermia
- ③ Hypertrophy ④ Nervous breakdown

【문 10】 주어진 문장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의 순서상 가장 알맞은 것은?

Defying the Odds at Craig's Records

Craig's Records has experienced remarkable growth over the last few years, having opened an additional ten stores across the country in the last five years. When Craig Milligan, the owner of the chain was asked what the secret of his success was,

(A) From the beginning, he wanted to restore the feeling of a neighborhood record store where people could enjoy spending countless hours.

(B) he responded that it was probably the atmosphere of the store.

(C) That was why when he expanded nationwide he kept the same design at every new location.

A tiny store where the staff could get to know all the customers and their music preferences. The formula seems to have paid off for him as profits have increased 45% this year alone.

- ① A-B-C ② A-C-B ③ B-C-A ④ B-A-C

【문 11】 (A), (B), (C)의 각 괄호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tsunami of December 2004 resulted in a severe loss of life and property along coastal Tamil Nadu in southern India. For 15 years now, residents of that district have been trying to persuade coastal communities not to destroy the mangrove forests along the coast. But the coastal people's preoccupation with their livelihood did not allow them to (A) [ignore / heed] that request. The tsunami miraculously changed their outlook. Villages (B) [adjoining / conjoining] thick mangrove forests were saved from the fury of the tsunami because of the wave breaking role played by the mangroves. But in nearby villages, where mangroves had been (C) [conserved / destroyed] either for fuel wood or to create fish ponds, several hundred fishermen died.

- | (A) | (B) | (C) |
|----------|------------|-----------|
| ① ignore | adjoining | conserved |
| ② heed | adjoining | destroyed |
| ③ heed | conjoining | conserved |
| ④ ignore | conjoining | destroyed |

【문 12】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fluid dynamics, Bernoulli's principle states that for an inviscid flow, an increase in the speed of the fluid occurs simultaneously with a decrease in pressure or a decrease in the fluid's potential energy. Bernoulli's principle also tells us why windows tend to explode, rather than implode in hurricanes: the very high speed of the air just outside the window causes the pressure just outside to be much less than the pressure inside, where the air is still. The difference in force pushes the windows _____, and hence explode. If you know that a hurricane is coming it is therefore better to open as many windows as possible, to equalize the pressure inside and out.

- ① itself ② bottom ③ inward ④ outward

【문13】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Government authorities in the United States have no control over what is published. The freedom has allowed the development of a fiercely independent and diverse communications industry. One result is the press exerts more influence in the United States than any other country. Often this influence is a force for reform, uncovering shortcomings in society and providing information that people in powerful positions are sometimes reluctant to divulge. Anyone who does not want his article to get censored must then start his or her own newspaper. ①Many people argue that censoring is unconstitutional and an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press. ②Another result, however, is a tendency to ignore, as much as possible, the occasional errors, excesses and lapses in fairness by the press itself. ③For many decades attacks on specific flaws were regarded as undermining the basic freedom of the press - particularly when the attacks came from outside. ④Inside, the general practice was silence.

【문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Many birds pursue prey by swimming under water, but none is so superbly adapted to the task as the penguins. (A) The entire anatomy of the penguin wing has been modified so that it is a stiff, oar-like flipper like that of a dolphin. (B) Awkward on land, penguins use their wings for underwater propulsion as efficiently as other birds use wings for flying. (C) Although all birds share a generally similar body plan, they vary greatly in size and proportions, being adapted to so many ways of life. (D) Most other underwater swimmers - such as loons, cormorants and some ducks - are propelled by their powerful feet, although some use their wings for balance.

- ① (A) ② (B) ③ (C) ④ (D)

【문15】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are now beginning to realize that the great age of expansion of man over the face of this planet is rapidly drawing to a close. There are no great open spaces any more and we are forced to recognize the very limited nature of the earth's resources. The geological capital in the shape of fuel and minerals which has made our present achievements possible will have been exhausted and is unlikely to be renewed. Man's voyages to the moon, and later no doubt to other planets, are not likely to open up any new resources, simply because of the enormous energy requirement for transportation. The whole space enterprise is more likely to be resource using than resource-finding. It will eventually bring us face to face with the realization that the earth is all we have, and that this precious beautiful, blue-green planet must be cherished and preserved if we are to continue to inhabit it.

- ① necessity of developing universe
② necessity of preserving Earth
③ limitation of human history
④ energy of developing civilization

【문16】 밑줄친 (A), (B)부분에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가?

Asahi Breweries canceled its plan to sell beer in plastic bottles, following objections from environmental groups. Asahi had planned to launch Japan's first plastic beer container as part its strategy to promote the drink for younger consumers (A)_____ value convenience and style. However, Greenpeace Japan led a campaign against the plan claiming that the introduction of plastic bottles would create waste disposal problems. Greenpeace said that the beer industry should stick to existing glass bottles, (B)_____ a recycling system exists.

- ① which - for which ② what - in which
③ who - in which ④ who - for which

【문17】 밑줄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As more women gain the work experience and education necessary to qualify for leadership positions, the supply of capable women leaders grows. Organizations are subsequently called on to reestablish and expand their notions of what constitutes effective leadership as it relates to gender stereotype, and role expectations. If traditional perspectives of leadership center on masculine-oriented concepts of authoritarian and task-oriented behavior, then these same perspectives may contribute to a '_____' prohibiting relationship-oriented (i.e. feminine) leadership behaviors from integrated into organization management structures.

- ① task-oriented leadership ② glass ceiling
③ high-speed growth ④ feminine behavior

【문18】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어색한 것은?

The pressure is almost as heavy on students who just want to graduate and get a job. Long gone are the days of the "gentleman's C," when students ①journeyed through college with a certain relaxation, ②sampling a wide variety of courses that would send them out as liberally ③educated men and women. If I were an employer I would rather employ graduates who have this range and curiosity than those who narrowly pursued safe subjects and high grades. I know countless students whose inquiring minds ④exhaust me. I like to hear the play of their ideas. I don't know if they are getting As or Cs, and I don't care.

- ① journeyed ② sampling ③ educated ④ exhaust

【문19】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But nothing seems to work.

Korean police have a very hard time trying to control the situation. (①) They've tried everything from policemen dummies to hidden cameras to crackdowns. (②) Drivers soon figure out where the dummies are and then just ignore them. (③) They memorize where the cameras are hidden, so they slow down before they get to them and speed up again as soon as they pass. (④)

【문20】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Yet even the most superficial look into history shakes such an opinion.

The price of art attracts more public attention than any other commodity - except perhaps oil. (①) The ups and downs of the price are debated by thos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business. (②) An exceptionally high price attracts wide media coverage together with a public response that ranges from outrage and ridicule to admiration. (③) The orthodox view is that this situation is not only new but bad and that art is not subject to financial speculators. (④) Holland, a rich and powerful imperial nation in the seventeenth century, traded and speculated in art. A historian records that it was quite usual to find Dutch farmers paying the equivalent of up to £3,000 for painting and then reselling them at 'very great gains'.

【문21】 다음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In the past few decades, biochemistry has come a long way towards explaining how the cell produces all its various proteins. But as to the breaking down of proteins, not so many researchers were interested. Aaron Ciechanover, Avram Hershko and Irwin Rose went against the stream and at the beginning of the 1980s discovered one of the cell's most important cyclical processes-regulated protein degradation. For going against the tide with their bold research, they were rewarded with this year's Nobel Prize in Chemistry. The work of the three laureates has brought us to realize that the cell functions as a highly-efficient checking station where proteins are built up and broken down at a furious rate.

- ① 어떻게 단백질이 분해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 ② 세포가 어떻게 다양한 단백질을 생산해 내는지 설명하기 위해
- ③ 생화학에서 시류를 따르지 않았던 비주류 연구자들의 업적을 설명하기 위해
- ④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의 연구로 노벨상이 더욱 빛이 날을 알리기 위하여

【문22】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은?

On the morning of December 7, 1941, Japanese submarines and carrier planes ①launched an attack of the U.S. Pacific Fleet at Pearl Harbor. Two hundred American ②aircrafts were destroyed, eight ③battleships were sunk, and approximately eight thousand naval and military personnel were killed or wounded. This savage attack and ④its horrifying consequences propelled the United States into World War II.

- ① launched ② aircrafts ③ battleships ④ its

【문23】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hausted from studying for final exams, he returned one December day to his rented, off-campus room and fell into a deep sleep.

- (A) An incredibly heavy weight compressed his rib cage. Breathing became difficult, and he felt a pair of hands encircle his neck and start to squeeze.
 - (B) An hour later, he awoke with a start to the sound of the bedroom door creaking open-the same door he had locked before going to bed. He then heard footsteps moving toward his bed and felt an evil presence.
 - (C) It gripped the young man, who couldn't move a muscle, his eyes wide open. Without warning, the evil entity, whatever it was, jumped onto his chest.
- ① (A) - (B) - (C) ② (A) - (C) - (B)
③ (B) - (C) - (A) ④ (C) - (A) - (B)

【문2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Obesity has a strong genetic component, and th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why a given individual is obese. But genetic characteristics in the population change very slowly, and so they clearly cannot explain why obesity has increased so rapidly in recent decades. Researchers have instead sought to explain obesity by looking at technological changes, changes in consumer habits, and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Economists have taken the lead in these efforts. According to them, technological advances in agriculture have caused grocery prices to fall, and these declines have caused consumers to demand more groceries. The increase of food consumption has contributed to a surge in caloric intake that can account for as much as 40 percent of the increase in the body mass index of adults since 1980.

- ① reasons for recent rapid growth in obesity
- ② worldwide efforts to reduce caloric intake
- ③ risks overweight people might struggle with
- ④ the main culprit of increased food consumption

【문25】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However, people growing up in different cultures have very different ideas about what is natural and very different assumptions about human nature.

We tend to feel that the way we do things, say things, and think about things is only logical. (①) The level of aggression that seems appropriate, and ways of expressing agreement or disagreement, come to seem natural. (②) Observing how people in other cultures deal with conflict, disagreement, and aggression can give new perspectives in our attempts to manage conflict and use opposition in positive rather than negative ways. (③) Such a newly-acquired view suggests possibilities - for example, of how similar ends can be achieved with different means. (④)

【민 법 25문】

【문 1】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채권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묵시적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 ③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 의무의 존부 및 액수 등에 대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
- ④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인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반대로 원인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문 2】 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언자의 날인이 없고 무인만 있는 유언장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수 있다.
- ②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 하더라도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유언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은 다른 증거방법으로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하여야 하는데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증인 중 1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무효이다.

【문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은 상호명의신탁관계이다.
-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 4】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다.
- ④ 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문 5】 종중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므로, 종중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 결의는 무효이다.
- ②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향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상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바, 위 제8조 제1호의 종중에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종중 유사체의 비법인 사단도 포함된다.
- ④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문 6】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된다.
- ②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동채권이 가압류 당시 변제기가 이르지 않았지만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고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 7】 자의 성과 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②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③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자의 복리 보호라는 성과 본 변경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성년이 된 자는 성과 본 변경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④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과 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문 8】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 ②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승낙하면 그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 ③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④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다.

【문 9】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경매대가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는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 ③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 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문10】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공동 아닌 수인(數人)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법률상 추정된다.

【문11】 민법상 법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②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나, 재단법인이 그 소유권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 ③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된 경우에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2】 유증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
- ② 포괄적 유증에는 대습상속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더라도 그 유증은 효력을 잃지 않으나,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된다.
- ③ 특정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총칙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④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증에 관한 규정 모두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13】 준소비대차와 경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고, 기존 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②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이 있었던 사안에서 그 대환의 성질이 준소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소멸한다.
- ③ 경계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 ④ 경계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계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문14】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도박자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등기설정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문15】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 ②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 ③ 채권자가 사해행위 전부의 취소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없다.
- ④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문1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
- ③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문17】 다음 중 출소기간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민법 제204조 제3항, 제205조 제2항)
- ②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행사기간(민법 제670조)
- ③ 친생부인권의 행사기간(민법 제847조)
- ④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문18】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여나 기부행위와 같이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공박·경솔·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 ③ 피해당사자가 공박·경솔·무경험의 상태에 있었으면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 ④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 무경험과 공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19】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 ②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③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후 상대방이 행한 최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④ 무능력자가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7조 제1항의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문20】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 ②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인정된다.
- ④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어서는 안된다.

【문21】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산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으나 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 ② 상속,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다.
- ③ 민법 제249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 하더라도 그 선의취득자는 그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건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건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건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문22】 다음 중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매도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 ②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부분이 하천인 경우
- ③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경우
- ④ 공장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관할관청에 알아본 결과 공장설립허가가 허용되지 않는 토지인 경우

【문23】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 ② 혼인 외의 출생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후에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 ③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 ④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문2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③ 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질 때에도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④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문25】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③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④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25문】

【문 1】 다음 중 송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원본에 의한다.
- ② 판결,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등본을 송달한다.
- ③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④ 위 ③항의 경우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 둘 수 있다.

【문 2】 다음 중 이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 ③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기속력이 있으나,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④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결정의 원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문 3】 소송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 받은 피고지자도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 ② 소송고지는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여 참가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2심까지만 허용된다.
- ③ 소송고지를 받은 자가 참가하느냐의 여부는 피고지자의 자유이지만,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고지에 의하여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소송고지서는 피고지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문 4】 증인 출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증인의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고, 증인의 구인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③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④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으로 증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증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여야 한다.

【문 5】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요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로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을 변론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된다.
- ② 법원은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개시의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
- ③ 대리행위는 주요사실로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증거로 인정되는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자백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증거로 인정되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문 6】 소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모순관계에 있어야 한다.
- ② 예비적 병합 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移審)된다.
- ③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다.
- ④ 원심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아직 원심에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다.

【문 7】 선정당사자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소송이 계속된 후에 선정을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다.
- ③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선정당사자의 사망·선정의 취소에 의하여 당연히 상실되나,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지 않는다.
- ④ 어떤 심급에 한정하여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문 8】 민사소송법상 서증이 되는 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문서의 지질·형상이 증명의 대상이 된 경우에 서증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 ② 내용증명우편은 그 전체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이 추정된다.
- ③ 회계장부·일기는 처분문서이다.
- ④ 당해 사건에서의 증인신문조서는 다시 서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문 9】 다음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
- ② 제출자료상 존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직권조사사항의 존부 자체는 재판상의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는 항변사항을 제외한 소송요건, 절차적 강행법규의 준수 여부, 실체법의 해석적용 등이다.

【문10】 다음 중 지급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 ②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도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문11】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소이므로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2심의 변론종결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누락된 피고를 추가할 수 있다.
- ③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교회 자체의 명의로만 할 수 있다.
- ④ 토지의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 수 있다.

【문12】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하다.
- ② 보충송달·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 ③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요건을 갖추어 발송송달을 한 경우 그 후 그 사람에 대한 송달은 우선적으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본인신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문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본소가 취하된 경우 반소를 취하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 ③ 항소인은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피항소인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 ④ 부대항소를 취하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14】 소송상 대리권의 흠이 있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소송상 취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고, 따라서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유동적 무효이므로 추인이 가능하다.
- ② 추인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며, 상고심에서 추인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제소과정에서 대리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 보정되지 않으면 그 소는 종국판결로 부적법 각하된다.
- ④ 대리권의 흠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이 행해진 경우 해당판결은 당연무효이다.

【문15】 다음 중 중복제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중복제소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② 판례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내린 본안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 ③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바뀌어도 무방하나, 법원은 같은 법원이어야 중복제소이다.
- ④ 판례에 의하면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후소의 변론종결일까지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문16】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증거의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증거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 ② 증거의 신청은 증거조사가 개시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 ③ 증거조사기일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 ④ 다른 법원의 판사에게 증거조사의 실시를 촉탁할 수 있다.

【문17】 소송종료선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의 취하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조정·무효를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당연무효사유가 없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 ③ 소송종료선언은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항고가 허용된다.
- ④ 일신전속적인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더라도 소송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

【문18】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② 대여금청구의 소송목적물의 값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③ 전속관할에 위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 ④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문19】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문서소지인을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반드시 문서 원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③ 등기부호적부 등본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다.
- ④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문서는 자동적으로 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된다.

【문20】 항소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제1심의 보조참가인은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있다.
- ②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는 항소할 수 없다.
- ③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1인의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④ 항소제기는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문21】 다음 중 임의적 소송담당은?

- 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하는 파산관재인
-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
- ③ 선정당사자
- ④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

【문22】 판결의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소에 의하여 기록이 상급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도 제1심 판결에 대한 경정은 제1심 법원에서만 할 수 있다.
- ② 경정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
- ③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나 집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기초하여서도 판결경정을 할 수 있다.
- ④ 판결 주문의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경정할 수 없다.

【문23】 판결의 확정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 ② 상고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 ③ 일부상소의 경우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의 판결확정시기는 항소심의 경우 항소심 변론종결시라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각하판결이나 상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문24】 부인과 항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변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주요사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방어방법을 주장하는 것이다.
- ② 판결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반드시 피고의 부인사실을 배척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 ③ 피고가 항변한 경우, 증명책임은 대개 피고에게 있다.
- ④ 피고가 부인한 경우, 증명책임은 대개 원고에게 있다.

【문25】 항고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② 통상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 ③ 통상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특별항고의 경우에 원심법원은 재도(再度)의 고안(考案)을 통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형 법 25문】

【문 1】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②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등기명의를 가진 부동산소유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이른바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신탁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타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증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 내지 그 타인의 손해는 그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으로서, 이를 산정하는 때에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문 2】 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게 한 경우
- ② 주주로부터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자가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고함을 질러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한 경우
- ③ 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
- ④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의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경우

【문 3】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 ② 중체포죄, 중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 ③ 과실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 ④ 대법원 판례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문 4】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권리에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 ②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도 포함된다.
-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문 5】 다음 중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복사문서
- ②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
- ③ 컴퓨터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문서의 이미지
- ④ 신용장의 은행접수일부인

【문 6】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흥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
-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등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위 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은 당연히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건물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문 7】 다음 중 범인은닉죄 내지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검사로부터 범인검거지시를 받은 갑이 범인인 을에게 전화를 걸어 도피를 권유한 경우
- ② 교도소에서 탈주한 을이 갑에게 찾아가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려고 하니 차를 빌려달라고 하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검문이 심하니 조심해서 가라고 말한 경우
- ③ 갑은 자신이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인임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인 을에 대한 체포와 발견에 장애를 준 경우
- ④ 참고인인 갑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범인으로 체포된 을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진범인 을이 증거부족으로 석방되어 도망치도록 한 경우

【문 8】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 ②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 ④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문 9】 다음 중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사인 피고인이 다른 교사의 이름을 도용하여 같은 학교 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교사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 ② 행인 두 사람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정치인은 전부 뇌물을 받는다고 떠든 경우
- ③ 피고인이 남편과 단둘이 있는 자기집 안방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그와 다투다가 예전에 피해자가 자기방에 들어와 포옹을 하며 성교를 요구한 더러운 놈이라고 말한 경우
- ④ 새로 목사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 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문10】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범행에 가담할 때에 중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②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기 시작한다.
- ③ 포괄일죄로 된 개개의 범죄행위가 범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범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④ 실체법상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의 일련의 사기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된다.

【문11】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 중 어느 일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② 수개의 부작위범 사이에도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다.
- ③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 중 한 죄는 친고죄이고 다른 죄는 비친고죄인 경우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비친고죄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문12】 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 ② 중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만을 2배로 가중하며 단기까지 가중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경합범에 해당하는 수개의 죄가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에 누범 가중을 한다.

【문13】 다음 중 범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몰수할 수 없는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사형성 오락실의 상품권 환전소에서 보관하던 현금
- ② 허위기재 부분이 있는 공문서
- ③ 강도 범행에 사용된 기소중지된 공범 소유의 자동차
- ④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도대가로 받은 금품

【문14】 폭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 ②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 ③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
- ④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나 또는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 당연히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문15】 다음 중 일죄로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 ② 단일한 범의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④ 강도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문16】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 ②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든 가능하다.
- ③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다.
- ④ 고지된 해악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

【문17】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는 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②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장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포주와 윤락녀가 화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서도 포주가 보관 중인 화대를 모두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18】 다음 중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① 노상에 세워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를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절도죄)
- ②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의 목적으로 낮에 빈집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특수절도죄)
- ③ 아파트에 침입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주거침입죄)
- ④ 무허가 건물의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은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배임죄)

【문19】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기수에 이르면 준강도죄의 기수가 된다.
- ② 절도의 범행현장에서부터 계속 추적중이었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는 장소적 근접성이 없더라도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폭행이나 협박은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다.
-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문20】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직계혈족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②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에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주범에게는 직계혈족, 친족 등의 신분관계가 있고, 방조범에게는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방조범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 ④ 경계침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21】 소송사기에 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고가 소송사기의 주체인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해야 하므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 위치에 있는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허위주장을 하여 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허위주장을 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문22】 다음 중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다른 사람이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취하여 간 경우
- ②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넌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 ③ 음식점 측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측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
- ④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

【문23】 경찰관 갑과 을은 피고인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신고를 받고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갑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을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갑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및 을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제적 경합범
- ② 갑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및 을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 ③ 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제적 경합범
- ④ 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문24】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남성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는 성전환자라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할 수 있다.
- ② 부녀를 강간한 자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③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④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하므로, 찜질방과 같은 곳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25】 고의가 현실로 발생한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여야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이른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다음 중 사례의 해결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갑을 살해할 의사로 전방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는데 사실은 피해자가 을이었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지 않고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개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는데 개가 아니라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재물손괴의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③ 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을 향하여 저격하였는데 갑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을이 맞아 사망한 경우, 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을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④ 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을 향하여 저격하였는데 갑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던 개가 맞아 죽은 경우, 행위자는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형사소송법 25문】

【문 1】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이하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옳은 진술은 몇 개인가?

- (ㄱ)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신청을 수사기관이 거부한 것이 변호인이 가지는 피의자 조력권 및 알권리를 침해한 위헌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ㄴ)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ㄷ) 검사는 국가안보,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 등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를 거절할 수 있다.
- (ㄹ)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ㅁ) 법원은 위 (ㄹ)상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 열람·등사 허용시 생길 피해의 유형·정도, 피고인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의 필요성 및 해당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2】 피고인의 출석, 불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여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피고인이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의하여 출석하지 않은 때는 동의가 의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 ③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재판장은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문 3】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와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④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문 4】 압수와 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압수·수색영장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이때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 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船車)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 ③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 ④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지만,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은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계속 사용하여야 하더라도 가환부할 수 없다.

【문 5】 다음 중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계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는데,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고,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교도소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직원을 통하여 재감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받은 날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된다.
- ④ 주소,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 6】 구속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법원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 7】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에는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④ 검사가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임의성이 있으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탄핵증거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문 8】 상소권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 ③ 상소의 포기·취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효력이 없음에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과되어 사건이 종국된 경우에 그 포기·취하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소권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교도소장 등 교도관이 법원의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상소기간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재소자인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다.

【문 9】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일체의 중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② 상소심이 피고인의 상소를 이유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경우에 환송받은 법원은 중전의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 ③ 집행유예가 동시에 선고된 징역형의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④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문10】 다음 중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중단하고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할 수 있다.
-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하고, 피고인은 물론 검사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문11】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즉결심판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12】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재심의 청구는 취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④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13】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상명령절차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되어 있고 기대이익의 상실(일실손해)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유죄판결을 할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배상명령신청은 서면으로 함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당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문14】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④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15】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이는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다.
- ③ 재정신청은 취소할 수 있는데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문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④ 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거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문17】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피의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18】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②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 ④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함이 원칙이나,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문19】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의 경과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의 경과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의 경과로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 ②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③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④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문20】 다음 중 소송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호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는데,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소송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대표한다.
-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문21】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 ③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문22】 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간통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④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문23】 일부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② 징역형과 몰수형 중 몰수형에 대하여 일부상소가 허용된다.
- ③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④ 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문24】 보석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 ③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④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문25】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②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③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 ④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상 법 25문】

【문 1】 다음은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②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채권자라면, 영업양수인에게 상호 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바, 당해 채권자가 선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 ③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이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을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 2】 다음은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이다.
- ②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 ③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문 3】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함)

-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에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정관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
- ②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 ③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에게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문 4】 다음 갑, 을, 병의 진술 중 타당하지 않은 진술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행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을: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병: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① 갑, 을 ② 갑 ③ 없음 ④ 을, 병

【문 5】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① 여기서의 주주총회결의는 특별결의로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②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아닌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의 임의가 아닌 강제소각이 가능하다.
- ③ 주식소각을 위하여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문 6】 주식회사의 의결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ㄴ.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ㄷ.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ㄹ.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ㄷ,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7】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에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행위라도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 ② 이사와 주식회사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주식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 ③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당해 이사는 물론이고 거래상대방인 제3자도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갑, 을 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도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문 8】 다음은 주식회사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②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인수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무는 면제된다.
- ④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위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문 9】 주식배당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질권자의 권리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 ②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식배당을 하지 못한다.

【문 10】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회사의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피용자에 한해 부여할 수 있다.
- ④ 상장회사가 파산하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문 11】 영업금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 ②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③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위탁매매인이 되지 못한다.
- ④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문 12】 상업등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합자회사의 사원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라도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한 이상 그 지분의 양수는 유효하다.
- ③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 ④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고, 등기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문 13】 다음은 상호(商號)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된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 ③ 상호의 양도가 있었으나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상호를 속용하는 당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④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문 14】 주식회사의 주식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 ② 주식을 분할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주식분할 후의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④ 주식의 분할은 신주권을 교부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문15】 유한회사의 설립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한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유한회사의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중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면제할 수 없다.

【문16】 주주총회의 결의 및 그 하자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6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③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④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6월 내에 결의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17】 갑과 을은 갑이 을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을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이익조합계약을 하였다. 을은 갑과의 약정에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도 이익배당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계약서에 명기하였다. 갑과 을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의 각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은 을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 ② 갑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③ 갑은 을과의 약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조합계약이 종료하면 을은 갑에게 손실 여부와 무관히 출자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18】 다음은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한다.
-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문19】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라도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문20】 다음은 주식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는, 회사 분할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당시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한다.
- ③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 ④ 무의결권우선주주는 분할승인결의에 있어서도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문21】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④ 대리상의 본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문22】 다음의 각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④ 유동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문23】 다음은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명주식이 양도되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취소된 경우라면,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의 복구 없이도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 양도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③ 주식 임의소각의 경우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 ④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하다.

【문24】 이사의 보수에 대한 다음의 각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보수나 법정퇴직금과 달리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보수가 아니다.
- ③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임원퇴직금지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상법 제388조에 정한 보수라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④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문2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합명회사에서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③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 ④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부동산등기법 25문】

【문 1】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제3자의 허가서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도 이는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②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갑이 양 회사를 대표하여 A사에 불리하고 B사에는 유리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A사의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촉탁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어도 그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 2】 집행법원의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증의 우편송부 또는 교부는 원칙적으로 등기필증을 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 ②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면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및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은 등기소의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록 후 이를 등기소에서 보관한다.
- ③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 등기필증교부담당자는 이전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일간 등기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등기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등기필증교부담당자는 즉시 등기필증 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문 3】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기의 공시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에서 대위등기신청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③ 채권자가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와 권리변동에 있어서 중성적인 등기에 한하며, 채무자의 권리에 해가 되는 등기는 대위신청을 하지 못한다.
- ④ 개인인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대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대위원인을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 4】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인 하천구역에 편입된 하천법상 토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지상권설정등기 ② 저당권설정등기
- ③ 지역권설정등기 ④ 임차권변경등기

【문 5】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의한 등기관의 중복등기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 ②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용지가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 ③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 ④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할 수는 없다.

【문 6】 갑 주식회사는 자기가 소유하는 대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지적정리가 늦어져 대지권등기는 하지 않은 채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지적정리가 완료된 경우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는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과 함께 구분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위 ①과 같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등기원인증서로는 최초 분양계약서와 그 이후의 구분건물의 매매계약서 전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위 ①과 같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 ④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갑 주식회사는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 7】 다음 중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②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④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 8】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등기요건을 기술한 것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 ② 지붕 및 주벽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갖춘 것
- ③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 ④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 ①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 본을, 협의취득일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재결일자’를 각 기재한다.
- ③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관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나,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①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A에서 B로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 소유자 A를 등기의 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② 미등기주택에 관하여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에 앞서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임차권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 ④ 불확정기한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 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건축조합원과 조합간의 신탁계약에서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①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인 경우에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종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기존 위토인 농지가 수용 또는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 다른 농지를 위토용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농지인 토지의 등기부가 멸실된 후 종종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고 나중에 당해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종종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농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①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 ②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에도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가족관계등록)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등록기준)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전세권자의 인감증명
- ② 실제로는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제 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
- ③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각 공유자의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
- ④ 등기필증을 멸실한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지배인의 인감증명

① 외국인 ② 김포시 하성면
③ 농업협동조합 ④ 대한불교조계종

【문17】 등기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
- ③ 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같은 건물의 부대설비는 원칙적으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④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문18】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 ① 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환매특약등기 이후 환매권의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 ③ 공용부분인 취지를 정한 규약을 폐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공용부분인 취지의 말소
- ④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문19】 환매권에 관한 등기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내용은?

- ①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반드시 매매로 인한 권리가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하고, 동일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 ②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다.
- ③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매수인은 제3취득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압류,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문20】 청산법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 ②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 ③ 청산법인이 등기관리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 ④ 청산법인이 등기관리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문21】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에 할 수 있고, 공동신청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
- ②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 ③ 대상 부동산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예고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문22】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 ②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 ③ 부동산에 합유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합유자 중 1인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도 할 수 없다.
- ④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합유지분을 매도한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23】 다음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단독으로 신청하면 된다.
- ②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
- ③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24】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 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문25】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토지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이 때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② 신청서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등기관이 과오로 1억 원으로 기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다.
- ③ 등기관이 직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고 경정등기를 마친 후에 통지하면 된다.
- ④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경정등기를 실행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